



Candidates must complete this page and then give this cover and their final version of the extended essay to their supervisor.

Candidate session number			
Candidate name			
School number			
School name			
Examination session (May or November)	May	Year	2013

Diploma Programme subject in which this extended essay is registered: Korean (Category 3) B  
(For an extended essay in the area of languages, state the language and whether it is group 1 or group 2.)

Title of the extended essay: 한국의 비주류 문학  
Research Question: 대한민국 문학의 질풍노도의 시기 90년대에 태동한 비주류문학, 비주류문학이 주류문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Candidate's declaration**

*This declaration must be signed by the candidate; otherwise a grade may not be issued.*

The extended essay I am submitting is my own work (apart from guidance allowed by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 have acknowledged each use of the words, graphics or ideas of another person, whether written, oral or visual.

I am aware that the word limit for all extended essays is 4000 words and that examiners are not required to read beyond this limit.

This is the final version of my extended essay.

Candidate's signature:

Date:

## Supervisor's report and declaration

*The supervisor must complete this report, sign the declaration and then give the final version of the extended essay, with this cover attached, to the Diploma Programme coordinator.*

Name of supervisor (CAPITAL letters)

*Please comment, as appropriate, on the candidate's performance, the context in which the candidate undertook the research for the extended essay, any difficulties encountered and how these were overcome (see page 13 of the extended essay guide). The concluding interview (viva voce) may provide useful information. These comments can help the examiner award a level for criterion K (holistic judgment). Do not comment on any adverse personal circumstances that may have affected the candidate. If the amount of time spent with the candidate was zero, you must explain this, in particular how it was then possible to authenticate the essay as the candidate's own work. You may attach an additional sheet if there is insufficient space here.*

---

*This declaration must be signed by the supervisor; otherwise a grade may not be issued.*

I have read the final version of the extended essay that will be submitted to the examiner.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e extended essay is the authentic work of the candidate.

I spent  hours with the candidate discussing the progress of the extended essay.

Supervisor's signature:

Date

**Assessment form (for examiner use only)**

Criteria	Achievement level					
	Examiner 1	maximum	Examiner 2	maximum	Examiner 3	
A research question	2	2		2		
B introduction	1	2		2		
C investigation	4	4		4		
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4	4		4		
E reasoned argument	3	4		4		
F analysis and evaluation	3	4		4		
G use of subject language	4	4		4		
H conclusion	2	2		2		
I formal presentation	4	4		4		
J abstract	2	2		2		
K holistic judgment	4	4		4		
Total out of 36	33					

## 한국의 비주류 문학

대한민국 문학의 질풍노도의 시기 90 년대에 태동한 비주류문학,  
비주류문학이 주류문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Candidate Number:

Supervisor:

Extended Essay Subject: Korean HL (Language B)

Word Count: 3761

Date of submission: 28/Jan/2013

## Abstract (Word count: 268)

한국의 문학장르에는 주류문학과 비주류문학이라는 이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주류와 비주류를 가르고 있다. 마치 파벌을 나누듯, 편가르기를 하듯이 말이다. 그러한 가운데  
5 90년대 초부터 꽃피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비주류문학 특히 환상문학은 2013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다. 올해로 이 장르가 대한민국에 탄생한 지도 20년정도가 지났다.

필자는 “대한민국 문학의 질풍노도의 시기 90년대에 태동한 비주류문학, 비주류문학이 주류문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문아래 걸음마 단계를 이제 막 지나고 있는  
환상문학의 역사, 탄생배경, 당시의 문학과 비교, 가능성, 그리고 한계점들을 돌아보면서  
10 비주류문학이 내포하고 있는 강점, 단점을 돌아보고 가능성과 한계점을 짚어가면서 비주류문학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와 주류문학으로 편입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주류문학이 탄생하게 된 시기는 90년대로, 당시 대한민국 문학계는 파란만장한 변화를 맞이 하고 있  
었다. 민주주의의 바람과 경제대란인 IMF를 거친 문학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  
도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타고 태동하게 된 비주류문학, 시대의 급변한 변화 속에서 문  
15 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비주류문학은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타고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수많은  
강점들로 무장한 비주류문학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강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는 법.  
비주류문학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 스캔들, 텍스트본과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한다면 더욱더 이  
장르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비주류문학이 가진 가능성은 충분히 주류문학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 남은 것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뿐이다. 사람들에게 심어진 고정관념을 뿌리뽑고 새로운 인식을 심  
는다면 이젠 더 이상 비주류문학으로 불리지는 않을 것이다.

비주류문학을 조사하면서, 태동한지 20여년이 된 장르이다 보니 참고할만한 자료가 풍부하지 않다는 점  
이 매우 까다로웠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확립되지 않은 장르라서 그런지 비주류문학에 관한 논문이나 리  
서치와 같은 참고 자료가 부족해서 아쉬울 때가 많았다. 또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인도국제학교라서  
25 한국어 서적이 없어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없었다는 점도 때때로는 어려움으로 다가왔지만 비주류문학을  
사랑하는 한 명의 독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즐기면서 쓸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한다.

## Table of contents

5	Cover page -----	1
	Abstract -----	2
	Table of contents-----	3
	<b>서론(Introduction)</b> -----	4
10	- 소주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	5
	<b>본문(Body)</b>	
	1. 비주류 문학의 정의와 예 -----	5
	2. 비주류 문학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부제: 왜 대중문학 혹은 장르문학은 비주류인가?) -----	6
	3. 비주류 문학의 탄생-----	7
15	텍스트 인용: 드래곤 라자 -----	9
	4. 90년대 문학의 흐름과 비주류문학 탄생-----	11
	5. 비주류문학의 가능성과 한계점	
	a. 비주류문학의 문학적인 가능성 -----	13
	b. 비주류문학의 상업적인 가능성 -----	15
20	c. 비주류문학의 한계-----	16
	<b>결론(Conclusion)</b> -----	17
	Bibliography -----	19

## 서론(Introduction)

문학이란 쓰여진 그 시대의 모습을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이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문학 속에서 당 시대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추었다. 풍자와 은유 등의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 당 시대의 현실을 5 간접적으로 비꼬거나, 직설적인 화법으로 당 시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등 여러 모습으로 그 시대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문학작품들은 당 시대의 모습이나 사람들의 생활방식, 사람들의 사고방식, 다른 시대와의 비교 등을 하기에 용이하기에 근대에 이르러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홍길동전’ 이 있다. 홍길동전은 출판된 후<sup>1</sup> 금서로 취급되었는데 이 작품의 내용이 사람들<sup>2</sup>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사회적인 혼란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10 홍길동전은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였다. 당대에는 사회적인 혼란을 조장할 수 있다고 해서 금서로까지 취급을 받았던 책이지만 현대에 이르러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과 당시 사회적인 문제였던 적서차별과 탐관오리들을 비판하였고, 실리보다는 명분만을 중요시하던 당시의 유교사상을 비판하였다는 점에서 당 시대의 모습을 잘 표현한 문학이라고 불리고 있다.

문학은 크게 주류문학과 비주류 문학이라는 두 갈래로 나뉜다. 주류문학 비주류문학 이라는 표현은 미 15 국에서 사용하는 표현 (askwhy6675)<sup>3</sup> 으로 주류문학은 장르문학이나 대중문학이 아닌 일반문학을 이르는 말이고 비주류문학은 장르문학이나 대중문학을 이르는 말이다. 흔히 문학이라고 불리는 것은 주류문학을 일컫는 말로, 문화권력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askwhy6675). 주류문학과 비주류문학간의 장벽은 꽤나 높아서 장르문학 작가들이 주류문학계로 진출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 주류 문학, 비주류문학이라는 표현은 생소한 표현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미국에서 쓰이는 표현으로 아직까 20 지는 한국문학계에서는 정식으로 인정된 표현이 아니다. (askwhy6675) 사람들에게 생소한 표현인 주류, 비주류 문학 이 들의 차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용어인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고 즐기는 문화가 주류문화라면 비주류문화는 우리가 흔히 하위문화(서브컬처) 즉 B 급 문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에세이에서는 비주류문학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 깊게 탐구해보고자 한다.

25

<sup>1</sup> 홍길동전의 출판시기는 14세기에서 15세기 사이로 추정된다.

<sup>2</sup> 천민, 서민과 서자들.

<sup>3</sup> 출처는 네이버 카페 ‘열린 문학’ 으로 주류문학과 비주류문학의 정의를 가지고 왔다. 위의 아이디어는 작성자의 아이디어이다.

##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필자는 평소에도 비주류문학을 즐겨 읽는 편이다. 사실 즐겨 읽다 보다는 중독된 것 같이 읽는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것이다. 처음 친구를 통해 판타지 소설을 접한 뒤 판타지 소설이 가진 매력에 푹 빠져들기 시작했다. 중학교 2학년 때에 처음으로 판타지 소설을 접하고는 지금까지 약 6년 가까이 판타지소설과 같은 장르소설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중독성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가 거기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기에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번 EE(Extended Essay)를 국어(Korean)로 쓰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평소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던 비주류 문학에 대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장르문학의 문학적 가치를 나 스스로가 충분히 입증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그 동안 판타지 소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야심이 이번 에세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 한국 비주류문학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독자로서 비주류문학 그 중에서도 특히 환상문학 20년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 보고 비주류문학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주류’는 언제까지나 비주류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비주류와 주류 사이의 벽이 높고 두꺼워서 허물어 지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문학의 질풍노도의 시기 90년대에 태동한 비주류문학, 비주류문학이 주류문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가면서 에세이를 시작한다.

## 본문(body)

### 1. 비주류 문학의 정의와 예

비주류문학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위에서 말한 대로 장르문학이나 대중문학을 뜻한다. 장르문학이란 일반문학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장르문학은 다른 말로는 장르소설이라고도 불리며 정의를 내리자면 “특정장르의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 장르에 해당하는 소재, 주제, 양식 등의 특징에 맞춰 쓰이는 장편 또는 단편소설을 뜻한다.” (위키피디아) 장르 소설에는 추리 소설, 스릴러 소설, 공포 소설, SF 소설, 판타지 소설, 무협 소설, 게임 소설, 로맨스 소설 등이 있다. 이렇게 비주류문학에 속한 장르들을 나열해 보면 사실상 우리가 주로 읽는, 즉 흥미위주의 책들은 대부분이 장르문학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을 말하자면 비주류문학 즉 장르문학은 주류문학(순수문학)과는 달리 표현기법, 형식, 소재



면에서 더욱 자유로운 창작방법을 기초로 하여 쓰는 글이다. 이로써 장르문학의 특징중의 하나인 현실에서 일어날법한 일을 기초로 글을 쓰는 경우도 있고,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법한 일을 세계관으로 하여 글을 쓰는 경우도 있다.

유명한 글쓴이로 예를 들면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대표적인 예다. 그의 책들은 대부분이 공상 소설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개미’는 개미와 인간을 연관 지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개미에게도 인간과 같은 사회가 있으며 개미가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언어가 있었고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고 그들만의 생활양식이 있었다. 우리가 미개하다고 느꼈던 개미들이 사실 우리와 동급의 존재라는 가정하에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책 속에서는 인간사회의 문제와 개미사회의 문제가 서로 연결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일련의 실종사건과 실종 사건을 통해 개미들의 사회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 (김정수). 그렇다면 위의 글에서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은 무엇일까? 그건 개미가 우리 인간들과 동등한 사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미와 인간이 서로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이며 일련의 사건들이 개미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세계관을 만들 수도 있다.

J.R.R. 톨킨스의 ‘반지의 제왕’ 한국에서는 90년대에 ‘반지 군주’라는 명칭으로 처음 소개가 되었는데,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은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하여 쓰여진 책으로써 마법과 기사, 요정, 난쟁이, 악마, 오크등의 현실에는 없는,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닌 이야기를 가져다가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쓴 책이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은 세계적으로 큰 열풍을 일으켜서 총 3편의 영화로써 영화화 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반지의 제왕’의 프리퀄(Prequel)<sup>4</sup>인 ‘호빗’이라는 영화가 개봉되기도 하였다.

## 2. 비주류 문학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 (부제: 왜 대중문학 혹은 장르문학은 비주류로 불리는가?)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는 것은 작가들이 아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류와 비주류는 작가들이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둘의 경계를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독자들)이다. 필자가 경험했던 일을 쓰자면, 필자는 근 5년간 대부분의 책을 장르문학으로만 읽었다. 장르는 폭넓게

<sup>4</sup> 전편보다 시간상으로 앞선 이야기를 보여주는 속편이다. 본편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설명하는 기능을 하며, 전편이 흥행해서 후편을 만들고자 할 때 만들어 지기도 한다. (위키피디아)



판타지, 무협, 로맨스, 추리, 스릴러 등 여러 가지 장르소설을 읽었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흔히 명작이라고 불리는 고전문학과 추천도서 등의 책을 읽어야지만 교양을 쌓고, 학업에 도움이 되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마음의 양식을 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일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장르문학에서도 특히 판타지나 무협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에 불을 더욱더 부채질한 것이 10대 청소년들이 장르소설을 읽다가 현실과 공상(환상)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사고사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 예가 있어서 어른들의 장르소설을 향한 인식은 더욱더 안 좋아졌다<sup>5</sup>. 이렇다 보니 비주류 문학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인식은 안 좋아져만 갔고, 급기야 어느 샌가 모르게 장르문학의 주 독자층인 10~20대 청소년, 청년들조차도 장르문학을 기피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우리들의 자세는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흑백논리에 근거한 것이라도 되는 양 장르문학을 흑으로 치부하여 기피하기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문학을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게 된 것이다.

### 3. 비주류 문학의 탄생

대한민국의 환상문학은 세계관은 대부분이 ‘반지의 제왕’에서 온 것으로 ‘반지의 제왕’은 한국 환상문학에 있어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판타지소설의 세계관은 북유럽신화에서 가져온 것으로 판타지에서 주로 나오는 엘프(요정), 드워프(난쟁이), 드래곤 등 중간계라는 설정 자체는 반지의 제왕에서 가져온 것이다. 무협소설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유행하던 장르문학의 일종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무협소설의 세계관은 기존무협소설 즉 중국의 무협소설에서 따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비주류문학중의 특히 판타지나 무협, 로맨스 소설과 같은 소설들의 유래를 쫓아가자면 우리는 어느 샌가 90년대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로 돌아가면 대한민국의 판타지, 무협 등의 환상문학 (시사용어사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당시는 인터넷의 보급이 막 시작되던 때로 그때는 인터넷이 아닌 PC통신이라고 불리었다. 그때는 컴퓨터가 아닌 특정 모뎀과 전화선을 이용해서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만 접속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당시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사이트는 나우누리,

<sup>5</sup> 판타지 소설을 읽다, 성적이 떨어져서 성적비관을 하다가 자살을 한 소년의 예가 있다. (조율선)

하이텔, 천리안 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나우누리과 하이텔, 이 둘의 PC통신에서 대한민국의 비주류문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때도 비주류문학이 있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입지가 부족한 편이었다. 아직 대중화도 되기 전이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소한 장르였을 뿐이다. 또 당시에는 글을 쓴다고 하면 순수문학이나 일반 문학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환상문학 작가는 글을 펴기는 힘든 시절이기도 했다. 당시 PC통신의 가장 큰 장점은 모뎀과 전화선만 있으면 대한민국 어디에 있던 간에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능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그래서인지 평소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글을 올리거나 혹은 심심풀이로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는 작품들은 작가들이 꾸준히 연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초창기 환상문학을 주도하던 두 명의 작가는 이영도, 이우혁이다 (송태현). 이우혁작가는 처녀작은 ‘퇴마록’ 이다. 자칫 들으면 식상할 수 있는 귀신과 악마 퇴치에 관한 이야기를 한국적인 판타지적 요소를 더해 풀어내었다. 물론 한국적인 판타지요소뿐만 아닌 신화, 종교 등을 더해 풀어낸 장편 서사시와 맞먹는 스케일로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이영도작가의 ‘드래곤 라자’ 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북유럽신화를 기반으로 하여 독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판타지를 만들어냈다. ‘드래곤 라자’ 의 특징들은 탄탄한 스토리 구성과 더불어 출판한지 약 20년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머러스 (humorous)한 이야기들 그리고 가벼운 듯 보이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독자들을 매료시켰다. 이영도 작가는 당시 놀라운 속도로 집필을 하였는데 총 12권의 분량을 약 6개월 만에 집필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두 작가는 한국 환상문학계의 선구자로서 대한민국 환상문학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 이우혁 작가의 ‘퇴마록’ 은 인터넷에서 연재하기 시작한지 이듬해인 1994년도에 출판을 시작하여 2001년도에 완결을 지었고 약 1000만부 (송태현)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리고 이영도 작가의 경우 그의 데뷔작인 ‘드래곤 라자’ 는 연재 당시 9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출판 후에는 국내에서 200만부의 판매 부수를 기록하였고, KBS에서 라디오 드라마로 제작이 되었으며, 소설 ‘드래곤 라자’ 의 내용을 옮겨 담은 온라인 게임이 제작이 되어 서비스 되었으며, 고등학교 교과서에 텍스트의 일부가 수록되기도 했다. 그외에도 일본과 대만 등에 번역해서 출판되었으며 최근에는 미국, 이탈리아에 수출에 대해 협의를 하는 등 매우 큰 가능성을 보여줬다.

다음은 드래곤 라자의 일부분이다.

"나는 단수가 아니다."

드래곤 로드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나는 질겁했다. 그렇군. 그는 알고 있었군. 드래곤 로드는 차갑게 말했다.

5 "그 간악한 녀석의 말로군."

드래곤 로드의 목소리의 울림은 스산했다. 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에요. 당신이 아까부터 우리 일행에게 던져온 질문, 아마 당신은 우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렇겠지요. 무례하다고 꾸짖지 않으시겠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가 아니에요. 따라서 당신은 아까부터 얼빠진, 죄송하지만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돼요. 예. 얼빠진 질문을 하고 있었던 셈이지요."

10 가슴이 팡팡거리는걸? 다행히도 드래곤 로드는 초장어의 맛이 어떨지 심사숙고하는 표정은 아니었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나의 실수를 설명해주겠나?"

"당신은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눠 놓고는 선택하라고 질문하셨어요."

"나눌 수 없는 것?"

15 제레인트는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로 날 바라보고 있었고 네리아는 두손을 꼭 쥐 채 날 바라보고 있었다. 센슨은 과랴게 질려있었고 이루틸은 무표정했다. 하지만 카알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래요. 당신은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어서 질문하셨어요. 당신 보시기에는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드래곤 로드께서는 센슨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지요."

센슨은 덜컥당하는 소리만 내지 않았을 뿐 그 외에는 심장이 내려앉은사람의 모든 징후를 보여주고 있었

20 다.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주고는 계속 말했다. 손바닥에 땀이 나는걸? 난 슬쩍 그것을 바지에 닦아 버리고 싶었지만 꺽 참으면서 말했다.

"센슨의 가족들을 죽이겠는가, 센슨을 죽이겠는가. 조금 달랐을지 몰라도 대충 그런 의미였지요. 하지만 그건 나눌 수 없어요."

25 "어째서지?"

"센슨은 하나가 아니니까. 센슨은 헬턴트의 경비대장 센슨이고, 나의 좋은 동료 센슨이고, 센슨의 아버지 조이스씨의 사랑하는 장남이에요. 카알의 신뢰받는 길잡이이고, 그리고 그 아가씨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인 센슨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센슨이지요. 이런 식의 이야기도 들어 보셨겠지요? 어쨌든 당신은 센슨 하나를 살려주는 대신 그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말했지만, 그 가족들을 죽이면 센슨도 죽는 셈이에요."

30 난 주먹을 꼭 쥐 채 말했다. 이마에 열기가 올라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도저히 말을 멈출 수가 없다.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샌슨이에요. 당신이 헬턴트 영지를 파괴하면 헬턴트 경비대장 샌슨은 죽는 셈이에요. 당신이 날 죽인다면 후치의 동료 샌슨을 죽이는 셈이고요. 당신이 조이스씨를 죽인다면 조이스씨의 아들인 샌슨은 죽는 셈이에요. 당신이 카알을 죽인다면 카알의 길잡이가 샌슨이 죽지요, 그리고, 그리고 그 아가씨를 죽인다면 그 아가씨의 연인인 샌슨을 죽이는 셈이라고요."

5 "샌슨은 하나가 아닌가?"

난 기가 막혀서 고향을 뺨 질러버렸다.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곤 곧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계속 다물 수가 없었다.

"영원의 숲, 영원의 숲 아시죠? 거기서는 자신이 자신을 죽이게 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10 드래곤 로드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건 안다만, 그것이 이 이야기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말해주겠나?"

"나가면 그 사람은 사라져 버려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남아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잊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 아직까지 그걸 모르세요? 나라의 것은, 나라의 것은 이 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구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15 모든 것들에 다 내가 있어요. 그것이라고요! 그 모든 것을 모았을 때 내가 있는 거라구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 것이 인간이에요!"

말을 마치고나자 숨이 찼다. 너무 흥분해 버렸나봐. 난 목을 타고 흘러 내리는 땀을 닦아 내었다. 지금 누군가 나에게 차가운 냉수 한 잔만 준다면 그를 위해 노래 100곡을 바치겠어. 농담이 아니라고. 드래곤 로드는 침울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20 "그랬었군... 그럴 거라고 짐작했지. 이제야 확신을 얻게 되었군."

드래곤 로드는 뉘시 모를 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거기에는 감히 끼여들 수 없는 위엄이 있었다. 우리는 모두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로군." (이영도)

25

위의 내용은 드래곤 로드<sup>6</sup>가 샌슨이라는 캐릭터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시작된다. 위에 언급된 것처럼 샌슨의 가족과 샌슨이 사랑하는 사람 중 한쪽만 구할 수 있다는 질문에 샌슨은 대답하지를 못하는 장면에서 그의 동료인 후치가 대신 대답하는 장면이다. 사람은 단수개체가 아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

<sup>6</sup> 드래곤들의 수장

나라는 사람의 인격체가 형성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당연하면서도 당연하지 않은 대답이 나오는 이유는 드래곤이라는 개체는 주로 혼자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이러한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가족과 연인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 그 둘 중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순진한 청년 샌슨은 그렇지 못했고 드래곤 로드는 샌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라는 개체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샌슨은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다는 것임을 알게된 드래곤 로드는 나직이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로군.”이라는 독백을 늘어놓는다. 드래곤 라자는 이러한 당연하면서도 당연하지 않은 듯한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던진다. 그리고 답을 확실하게 내려주지만 우리에게 한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고서 말이다. 독자들은 한번쯤은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고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드래곤 라자를 인용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독자들에게 던져지는 물음과 그걸 생각하게 만드는 스토리. 내가 드래곤 라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4. 90년대 문학의 흐름과 비주류문학 탄생

15 한국인들에게 있어 90년대는 특별한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당시 대한민국은 88올림픽을 거쳐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중이었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거쳐 이어져 오던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되던 시기였으며 90년대 후반부에는 IMF 때문에 경제적인 대란을 겪었다. 그래서인지 문학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80년대에 많은 소설들의 양식이었던 독재 대 민주를 탈피하는 시도들이 일어났었다. 90년대 문학을 전체적으로 줄이면 탈 이념의 시대<sup>7</sup>라고 불린다.

20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90년대 문학은 기존의 문학의 틀을 과감히 깨버리는 시도를 한 10년이였다. 첫째로, 기존의 소설의 전개방식에서 후일담 식의 전개, 즉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듯한 식의 전개방식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방식은 90년대를 지난 지금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으로 9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방식이 생겨났고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글들을 후일담문학이라고 부른다. 그 외에도 여성적인 체험, 여성위주의 문학이 발달하기도 했다. 그 동안의 남성중심적인 문학에서  
25 여성중심적인 문학,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후일담 식 전개를 통한 여성 성장소설이 등장하였고, 여자

<sup>7</sup> '1990년대'라는 인식과 '탈 이념'이라는 시대정신의 규정은 90년대 문학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이분법을 떠오르게 한다. 예를 들어 '이념'에서 '욕망'으로, '역사'에서 '일상'으로, '거대담론'에서 '미시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전환은 1990년대 문학은 탈 이념 시대의 문학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게끔 한다. (창비)



의 일상생활을 소설화 시키는 작품도 나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신세대 문학론’<sup>8</sup>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이 문학의 특징은 기성체제와 문화적인 질서를 거부하는 문학으로써 기존의 있던 것들을 부정하면서 기존에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글을 쓰거나 세상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큰 변화를 말하자면 문학의 상업화이다. 문학은 우리에게 하나의 오락거리이긴 하지만 문학으로 먹고 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문학은 필연적으로 상업적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90년대 이전의 문학이 순수문학에 가까웠다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순수문학에서 탈피하여 상업적인 모습으로 변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순수문학의 맥은 아주 끊긴 것만은 아니었다. 90년대 이르러 20여 년간 연재되던 ‘토지’가 완결이 됐고 80년대에 유행하던 장편소설인 ‘태백산맥’과 ‘장길산’은 아직까지도 꾸준히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시대를 거스를 수가 없듯이 문학의 상업화는 점점 가속화 되어갔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탄생하게 된 것이 한국의 환상문학이다. 환상문학은 당시의 출판사들이 원하는 독자들이 다가가기 쉽고 팔기 쉬운 문학이라는 점에서 출판사들과 접점이 있었고 출판사들은 당시 PC통신상에서 연재하고 있던 인기작가들을 섭외하여 출판에 이르게 된다.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대한민국 환상문학계의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다.

환상문학이라고 해서 당시 문학의 흐름을 거부하는 ‘신세대 문학론’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기 쉬울지 모르나, 환상문학 태동기의 작품들을 보면 당시의 문학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영도 작가의 ‘드래곤 라자’, 김철곤 작가의 ‘드래곤 레이디’ 같은 작품들은 당시 유행하던 후일담문학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환상문학은 ‘신세대 문학’과 어느 정도 공유하는 점이 있는데 환상문학의 특징상, 가벼움 즉 접근성이 용이한 것이 환상문학의 특징인 만큼 ‘신세대 문학’과 아주 궤를 달리한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환상문학은 90년대에 문학 그리고 신세대 문학이 다 함께 이루어져서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겠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90년대 문학은 문학의 위엄이 추락하고 문학의 사회적인 소외가 심했던, 문학적인 위기의 시대였다고 한다 (창비).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위기가 있었기에 작가들은 독자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었고 작가의 일방적인 메시지전달 뿐이었던 작가와 독자와의 일방적인 관계가 작가와 독자의 상호보완 관계가 될 수 있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작가는 독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작품에 대한 해석과 메시지를 독자와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등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작가와 독자의

<sup>8</sup> 이성보다는 감성, 무거움보다는 가벼움, 창조보다는 모방, 질서보다는 무질서, 정신보다는 육체에 더 강조점을 두는 새로운 문학 세대의 사유방식과 행동양식 (국학자료원)

만남을 예로 들면 작가의 출판회 혹은 작가가 마련하는 독자들과의 만남 등이 있고 인터넷 연재소설의 경우 작가와 독자가 서로 인터넷상으로 작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 일이 예가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문학의 위엄이 떨어졌다는 표현은 한국문학이 겪은 순수문학에서 일탈을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순수문학과 같은 예술성만을 추구하던 문학에서 벗어나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모습으로 변모한 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 물론 독자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시도는 좋았지만 대중문학, 장르문학의 파생으로 인한 문학의 상업화는 마땅히 지적 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독자들이 누리게 된 문학의 다양성과 질적인 발전을 보고 있노라면 90년대 한국문학은 위기 속에서 가능성을 찾고 발전한 시대였다고 생각된다.

## 5. 비주류문학의 가능성과 한계점

### a. 비주류 문학의 문학적 가능성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B급 문화라는 것으로 문화를 분류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문화라는 개념은 문화 그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놀이문화 즉 오락을 말한다. 물론 이러한 오락문화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즐겨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B급 문화라고 한다. B급 문화는 다른 말로는 '서브컬처' (sub-culture) 혹은 하위문화라고도 불리며 B급 문화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일 것이다. 문화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문화, 사람들이 즐겨 하지 않는 문화를 '서브컬처' 라고 한다. 그러나 서브컬처는 카운터 컬처 (두산백과) 라고도 부르며 기존의 문화가 추구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서브컬처를 즐기는 사람들을 '매니아' 혹은 '오타쿠'<sup>9</sup>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르다, 서브컬처는 서브컬처만의 매력이 있는 것이고 흡입력이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주류문학의 매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할 수 있다. 비주류문학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것이다. 장르문학의 본질처럼 상업적인 모습이 강하고 순수문학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에서 나왔듯이, 거창하게 사전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메시지가 무엇일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읽을 필요도 없고 그저 재미를 위해 구미가 당기는 대로 흥미가 이는 대로 읽으면 되는 것이다. 비주류문학인 장르문학이

<sup>9</sup> 초기에는 '애니메이션, SF영화 등 특정 취미·사물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분야의 지식이 부족하고 사교성이 결여된 인물'이라는 부정적 뜻으로 쓰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점차 의미가 확대되어, '특정 취미에 강한 사람', 단순 팬, 마니아 수준을 넘어선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는 긍정적 의미를 포괄하게 되었다. (두산백과)



가진 최고의 장점이자 장르문학이 발전할 수 밖에 없던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이기에, 이 특징은 장르문학이 가진 한계이자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서브컬처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서브컬처로 남아있을까? 다문화의 나라라고도 불리는 영국을 예로 들어보자. 수많은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곳이 영국이다. 지금의 우리들이 문화의 5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락, 히피, 스킨헤드, 펑키 그리고 클럽문화 등이 1960년대 영국에서 다양한 서브컬처들이 대중문화로 탈바꿈함으로써 현재의 우리들이 당시의 서브컬처들을 대중문화로 인식하는 것이다 (박희연). 그렇다면 비주류는 언제까지나 비주류여야만 할까?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아니다’ 이다. 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주류와 주류는 그 문화를 누리는 대중인 우리들이 정하는 것이다. 1960년도에 락이 대중문화가 되기 전까지 락은 10대 청소년들만이 즐기는 문화였지만 10 지금은 락이라는 음악 장르는 어느 정도 장벽이 있기는 해도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가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홍길동전’은 당시에는 기존의 기득권자(양반)들에 의해서 금서 취급을 받게 되었다. 그 내용이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을지는 모르나 현재의 우리에게 ‘홍길동전’은 당시의 시대상을 잘 알려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환상문학의 발달 즉 비주류문학의 발달로 인해 일어난 두드러지는 변화는 작가와 독자와 15 의 경계를 허문 것이다. 그전까지는 작가와 독자(일반인)의 경계가 지대했다. 작가가 되려면 대학에서 배워야 할 것도 있고 유명한 작가들 밑에서 문하생으로 글쓰기 훈련도 받았으며 있었으며 또한 출판까지의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하지만 PC통신을 통한 연재활동은 아무런 제약도 없었다. ‘퇴마록’의 작가 이우혁씨는 퇴마록 연재 당시 공대생이었다. 문학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가 취미삼아 인터넷에 연재하기 시작했던 퇴마록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이것은 공대생으로의 어느 정도 미래가 20 결정되어 있던 그의 인생을 작가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예로는 ‘카드 마스터’의 작가 박우진 작가가 있다. ‘카드 마스터’는 2001년도에 발간된 책으로 당시 박우진 작가의 나이는 18살에 불과했다. 그 또한 인터넷 소설연재를 통해서 등단하게 된 작가로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았던 박우진 작가가 출판을 하고 지금까지도 출판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환상문학이 작가라는 벽을 얼마나 허물어뜨렸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5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비주류문학은 어떠한가? 한국환상문학이 태동한지는 이제 20년이 조금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 필자와 같이 비주류문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와는 반대로 비주류문학을 싫어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사

5 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에 이르러서는 ‘해리포터’, ‘나니아 전대기’, ‘반지의 제왕’ 등의 작품들이 호평을 받으면서 환상문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후대에는 이러한 평가가 어떻게 바뀔까? 만약 한국에서도 ‘해리포터’, ‘나니아 전대기’, ‘반지의 제왕’ 과 같은 작품이 나온다면? 그로 인해 영화가 만들어지고, 해외에 알려진다면?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고, 엄청난 수입을 기록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비주류문학은 주류문학으로 즉 대중문화로 편입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마땅한 계기가 없어서 그럴 뿐이지 적당한 계기만 갖춰진다면 언제라도 서브컬처에서 대중문화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b. 비주류문학의 상업적인 가능성

10 여기서는 만화가 문학에 포함이 된다는 명제를 바탕으로 두고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만화는 그 어떤 문학보다도 큰 상업적인 잠재력을 가진 장르이다. 만화는 가진 가능성에 비해 비주류문학으로 분류되는데 그 이유는 많이 알려지기는 했으나 서브컬처에 속해있어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인식을 준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다. 만화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주력사업인 웹툰<sup>10</sup>이 있다. 2004년 서비스시작 이래 웹툰이 주력사업으로 까지 발전  
15 하게 된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종류의 다양성에 있다. 현재 네이버에서 연재하고 있는 웹툰은 137편, 각각 다른 캐릭터와 스토리의 웹툰이 다양성을 가지고 독자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둘째로, 가격이 무료라는 점이 있다, 집에서 인터넷에만 접속하면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사람들이 더 쉽게 즐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도들이다.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이용해서 만화에 노래를 대입하거나 효과음을 넣는 등 신선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틀을 벗어버  
20 리는 새로운 시도들은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안겨주었고 웹툰이라는 장르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만화의 가능성 중 하나는 바로 만화의 드라마 혹은 영화화이다. 일본에서는 흔한 일이나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었지만 웹툰의 흥행으로 한국에서도 만화의 영화화나 드라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만화가 강풀의 ‘이웃사람’, ‘26년’ 등이 있다.

25 한편 제 10의 문학인 만화를 떠나서, 글로만 이루어져 있는 소설들은 상업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보

<sup>10</sup> 영어 표현의 'web(웹)'과 'cartoon(만화)'을 합성한 말로, '인터넷을 매개로 배포하는 만화'를 의미한다. (songuno1)

여주었을까? 비주류문학 중 서문에 언급하였던 ‘드래곤 라자’ 와 ‘퇴마록’ 은 대한민국 환상문학계의 선두주자로서 모범을 보여주었다. ‘드래곤 라자’ 는 국내에서만 200만부의 판매실적과 해외 수출을 통한 매출을 올렸으며, ‘퇴마록’ 은 국내 판매량만 약 1000만부에 이름으로써 밀리언셀러(million-seller)를 뛰어넘는 빌리언셀러(billion-seller)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다른 예로는 연재 이후로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달빛조각사’ 가 있다. 게임소설로서, 소설의 주인공들이 가상현실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그려낸 소설로 10~20대의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게임소설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소설로 가벼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게임소설이면서도 현실에 대한 코믹한 풍자가 이루어지기에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달빛조각사’ 는 대한민국 비주류문학 중 가장 많은 출간 수를 기록 중이다<sup>11</sup>. ‘달빛조각사’ 는 2010년 총 누적판매 수 25만권을 기록하였고 현재는 더 많은 판매 수를 기록하고 있을 거라 추정된다.

### c. 비주류 문학의 한계

이렇듯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비주류문학이지만, 비주류문학에도 엄연히 한계가 있다. 비주류문학의 한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원인은 비주류문학의 태생적인 한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비주류문학의 근간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재미를 위한 문학이다 보니 특정작가의 고정적인 독자층을 형성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사서 본다는 인식보다는 빌려보거나 스캔본을 본다는 인식이 더 강하다. 순수문학의 경우 흔히 소장하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그에 비해 비주류문학은 ‘끼리끼리’ 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아는 사람만 알아줄 뿐이지 그 외의 경우에는 그저 호기심만을 유발할 뿐이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감이 있다. 이렇다 보니 현재 대한민국 비주류문학계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캔본’<sup>12</sup>과 ‘텍본’<sup>13</sup>이다. 사서 보자니 돈이 아깝고 그렇다고 안 보자니 아쉬운 사람들이 찾게 된 것이 스캔본이다. 이 스캔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법 다운로드를 장려하기 때문이다. 웹하드, p2p 사이트 등을 통해 무료로 혹은 아주 적은 돈만 내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소설책 혹은 만화책을 비싼 돈을 주고 구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스캔본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스

<sup>11</sup> 현재까지 연재된 권수는 총 38권, 현 대한민국 비주류문학에서 가장 많은 권수이다, 아직도 끝을 모르는 전개로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류문학에서 가장 많은 권수를 기록한 소설은 ‘토지’ 이다. (16권 5부, 총 80권)

<sup>12</sup> 스캔본이란, 소설이나 만화책을 스캔해서 공유하는 것으로, 공유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sup>13</sup> 텍스트본의 줄임말, 스캔본과는 달리 메모장에 소설을 그대로 타이핑해서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이른다.

캔본 때문에 작가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으로 별금형만으로는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다.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다가가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엄연히 그 속에도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비주류문학계에서는 뚜렷한 네임밸류를 가진 작가가 없다. 환상문학계에서는 초창기 환상문학계를 이끈 두 사람이 있지만 그 두 사람 이외에는 없다. 그렇다 보니 '박완서' 작가, '박경리' 작가 혹은 '이문열' 작가와 같은 거장이 없다. 이렇다 보니 특정작가에게 고정 독자층이 생기는 것은 소원한 일이다. 다가가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엘프, 오크, 드워프, 오우거, 드래곤, 마법, 마법의 종류 등 환상문학만 해도 그 안에 존재하는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지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마법이라는 것은 작가들마다 내리는 정의가 다르기에 모든 소설에서 마법이 같으리란 보장도 없다<sup>14</sup>. 이렇듯 쉬워 보이는 듯한 비주류문학이라도 엄연히 그 안에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 결론(Conclusion)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있다. 불교에서 쓰이는 말로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을 뜻하는 말이다. (두산백과) 원효대사가 당나라에 유학을 가다가 해골 물을 마심으로써 벌어진 일로 인해 얻은 깨달음으로 유명하다. 우리가 문학을 대하는 자세도 그렇다. 우리는 순수문학에서 예술성을 찾으려고 하고 대중문학에서는 재미만을 추구하면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듣지 않고 흘려 넘기는 일도 있다. 물론 문학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너무 깊게 파고들어 과잉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듣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비주류 문학을 대하는 독자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비주류문학이라고 해서 거기에 감동이나 작가의 메시지를 찾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토록 달고 맛있던 물이 본질을 알게 되니 토할 정도로 썩은 물이었다는 것, 그와 비슷하게 겉보기에는 멋있고 뭔가 있는 듯한 문학이어도 막상 그 속을 들여다 보니 빈 수레였다면? 이러한 일이 순수문학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순수문학이라고 불릴 수도 없을 작품이며 어쩌면 문학의 축에 끼지 못할 작품일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술성을 논하게 하는 문학이란 무엇인가? 감동? 메시지? 풍자? 예술성이라는 것은 지극히

<sup>14</sup> 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요술과 비슷한 종류의 마법이 있고, 싸이클(서클)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마법을 분류하는 것이 있다. 몇몇 장르에서는 마법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장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주관적이어서 내가 예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온갖 예술품들도 때때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할 때가 많다. 대표적으로 화가 ‘피카소’의 그림들이 그러하다. 특히 그의 추상화들은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예술품이라고 하기에 예술품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극히 상대적인 가치이기에 우리는 ‘어떤 것이 예술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일 수가 있는 것이고 객관적이기 않기에 선부른 판단에 의해 일반화의 오류<sup>15</sup>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파란만장한, 질풍노도의 사춘기 청소년들처럼 급격한 변화를 맞이 했던 90년대 문학의 틈바구니에서 태어나게 된 비주류문학은 시대의 흐름을 타고 급격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대한민국의 E-book 시장도 비주류문학의 시장가능성을 더욱더 높여주었다. 현재 출판계에서는 2000권이상만 팔려도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가 있고 5000권만 넘기면 성공했다고 판단한다 (송진현 기자). 이러한 불황 속에서도 여전히 수준급의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비주류문학, 이러한 비주류문학의 모습은 선부른 일반화를 극복할 정도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장르이다.

이 에세이에서는 한국에서 아직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비주류문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90년대에 태동하게 된 환상문학, 무협소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던 만화의 문학적 가능성과 상업적인 가능성을 살펴봤다. 비주류문학의 자유로운 창작방식, 접근성, 작가와 독자간의 상호보완관계, 기존문학장르에는 없었던 유연성, 실험정신 등은 비주류문학을 더욱더 빛내는 요소가 되었고 이 장점들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비주류문학의 문제점들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불법복제를 장려시키는 스캔본, 텍스트본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주류문학이 작가와 일반인의 경계를 허문 것처럼 앞으로도 작가들을 위한 등용문이 되고, 다양한 소재와 스토리로 독자들을 매료시켜주었으면 한다.

결론적으로 비주류문학이 가진 장점들을 발전시키고 단점들을 보완해서 비주류문학이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문학장르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기를, 시대의 바람을 타고 태동한 것처럼 앞으로도 시대의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sup>15</sup> 일반화: 한정적이거나 특수한 경험에 기초한 사람, 일 또는 사건의 분류에 관한 관념, 판단 또는 추상 등을 구성하는 과정 (이철수)

일반화의 오류: 부분을 전체로 착각하여 범하는 생각의 오류이다. 즉, "인간이나 사물 혹은 현상의 단면을 보고 저것(사람)은 당연히 저럴 것이다."라고 미리 짐작하여 판단하는 오류이다. (위키피디아)

## Bibliography

- 국학자료원. 문학비평용어사전, 한국문학평론가 협회편, 국학자료원, 2006.
- 김정수. “베르나르 베르베르/개미.” 2004년 6월 26일, 책읽는엄마의보물창고.  
5 <<http://jungsu19.egloos.com/595161>>
- 두산백과.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doopedia), 날짜 정보 없음.  
일체유심조. 두피디아(doopedia), 날짜 정보 없음.
- 박희연. Social LG. 2009년 6월 3일. <[http://social.lge.co.kr/lg\\_story/the\\_blog/culture/89/](http://social.lge.co.kr/lg_story/the_blog/culture/89/)>
- 송진현 기자. “[SC 페이퍼진]책 한권 출판 손익분기점은?” 스포츠 조선, 2009.
- 10 • 송태현. 한국사회와 환상문학의 유행. (주)살림출판사, 2003.
- 시사용어사전. “환상문학.” 2005.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72&docId=74292&categoryId=2867>>
- 위키피디아. 위키백과. 2012년 10월 5일.  
<[http://ko.wikipedia.org/wiki/%EC%9D%BC%EB%B0%98%ED%99%94%EC%9D%98\\_%EC%98%A4%EB%A5%98](http://ko.wikipedia.org/wiki/%EC%9D%BC%EB%B0%98%ED%99%94%EC%9D%98_%EC%98%A4%EB%A5%98)>
- 15 “장르소설.” 2012년 1월 24일.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E%A5%EB%A5%B4\\_%EC%86%8C%EC%84%A4](http://ko.wikipedia.org/wiki/%EC%9E%A5%EB%A5%B4_%EC%86%8C%EC%84%A4)>
- “프리퀼.” 2012년 9월 16일.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D%94%84%EB%A6%AC%ED%80%84>>
- 이영도. 드래곤 라자 6권(앞을 보지만 뒤를 생각한다). 황금가지 출판사, 2008.
- 20 • 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 블루피쉬, 2009.
- 조을선. “뉴스투데이.” 2011년 12월 30일. MBC-NEWS.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993759\\_5782.html](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993759_5782.html)>
- 창비. 새민족문학사 강좌 2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 askwhy6675. “얼린문학.” 2004년 4월 22일. 네이버 카페.  
25 <<http://cafe.naver.com/openliterature/24> >
- songuno1. 네이버지식인 오픈사전. 2009년 1월 16일.  
<<http://kin.naver.com/openkr/detail.nhn?docId=79740>>